

영암군,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본격 추진

미암면 미암리 공유림 부지 흑석산 일대

46ha 산림에 70여억원 투입해 조성 계획

영암군은 미암면 미암리 공유림 부지에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흑석산일대에 조성되는 기찬자연휴양림은 예부터 흑석산 유래가 있는데 비가 온 후 물을 머금은 바위의 색깔이 유난히 검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경관이 수려하며, 은굴, 은샘, 용목골, 치마바위, 장군바위 등 많은 전설을 지닌 바위들이 등산로 옆에 있어 기가 충만한 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영암군에서는 이 곳을 산림복합휴양단지로 조성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10년 산림육성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 생태숲

조성 및 동백, 단풍, 편백나무 등 자연경관 및 산림치유의 목적으로 산림 수종 10만여주를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왔다.

군은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 16일 기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산림청 고시 2017-47호) 되어, 2018년부터 조성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검토, 환경영향평가, 공공디자인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04월 전라남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최종 승인을 마쳤다.

기찬 자연휴양림은 기 조성된 산림육성, 생태숲 및 사방림 등과

연계해 46ha의 산림에 70여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자연휴양림으로 휴양효과를 극대화하고, 크게 2가지 테마로 구분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차 사업은 2021년 4월말 준공 예정인 체험활동지구는 쾌적한 산림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관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자센터(1동),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활기찬 숲(氣체험 및 치유공간)으로 조성되며, 2차 사업은 2022년 12월말 준공 목표인 휴양건강지구에는 숲속의 집(10동), 숲속 산책로(500m)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자연속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심신을 휴양하며 산림에 대한 조망과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방문객이 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해소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기가 충만한 장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해 산림문화와 휴양, 체험을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및 군민들의 삶의 휴식처를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DJ 서거 11주기 추모식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18일 하의도(평화의 섬)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모식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행사개최가 어려웠으나,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협력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김대중 생가에서 진행된 추모식은 국민의례, 헌화와 추모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용찬 신안군의회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용열 부군수와 천영철 주민대표는 추모사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지켜냈던 김대중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며 “故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돌아보고 그 분이 이루려 했던 꿈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코로나19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수해피해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내빈을 최소화해 초대하는 등 행사를 간소화 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제4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무안군은 지난 13일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강생, 주민,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4기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팀별 활동을 진행하여 무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 프로젝트를 구성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특히 5회부터 7회까지 세차례의 팀별활동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로 교육과정이 중단되면서 예정보다 수료가 늦어졌지만 끝까지 교육에 참석하여 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울러 향후 4년간 진행될 도시재생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에너지의 날 맞아 ‘5분 소등’ 함께해요

오는 22일 밤 9시 전국 동시 5분 소등 캠페인 진행

목포시는 제17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밤 9시에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5분 소등 행사’에 동참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올해 에너지의 날 목포행사는 목포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연산동 산정녹지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불을 끄고 별을 쬐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절약 체험·교육 등 프로그램과 별빛 문화축제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현상으로 우리지역도 유난히 긴 장마 피해를 입었다.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 생활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가정 및 기관·단체에서는 22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3,000여 보훈가족에 감사의 마음 전달



영광군은 지난 19일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장등 9개 보훈단체 회

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준성 군수를 비롯하여 각 보훈단체장과 관련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훈회원의 권익증진과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애쓰는 보훈단체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오늘로 이어진다.”며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각듯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청년 창업물’ 청년상인 모집

리모델링·시설물 하자보수로 영암환경 개선 활력기대

영암군은 전통시장과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개장했던 ‘영암군 청년 창업물’에 임점할 청년상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영암군 청년 창업물’은 당초 청년점포 10개와 청년일자리카페, 부대 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요식업 5개, 문화예술 체험공방 5개가 임점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카페에는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역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하지만 다소 협소한 공간에 불편을 느낀 상인들은 좀 더 넓은 공간을 찾아 이전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청

년물 영입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고, 올해 폭우로 인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가벽을 철거하여 영암읍공간 확충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일자리카페와 고용센터 운영을 병행하는 등 청년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청년물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상인 모집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19세~39세 창업 예정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인 자로 제한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